



# 젠더이슈

## 울산시민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변화

지난해 전국의 혼인 건수가 20만건 이하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혼인율에서는 처음으로 30대 초반 혼인율이 20대 후반 혼인율보다 높아졌습니다. 2021년 울산 시민의 평균 초혼 연령에서도 남성 32.8세, 여성 30.6세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1.3세, 1.4세 늦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청년실업을 증가와 함께 지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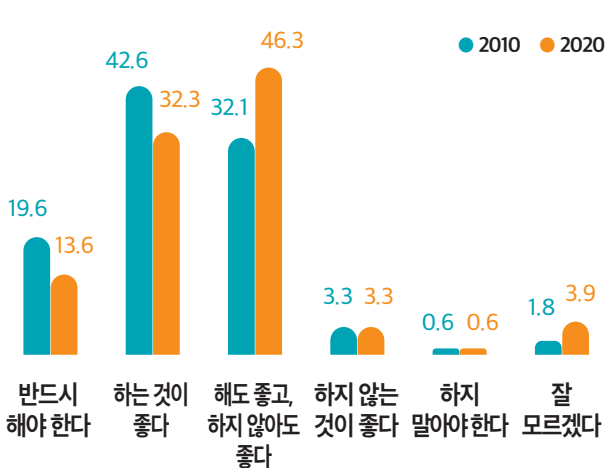
청년들의 인구 유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 등에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으며 더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젠더이슈톡톡'에서는 울산시민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고 성별, 연령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01 울산 시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

#### 울산 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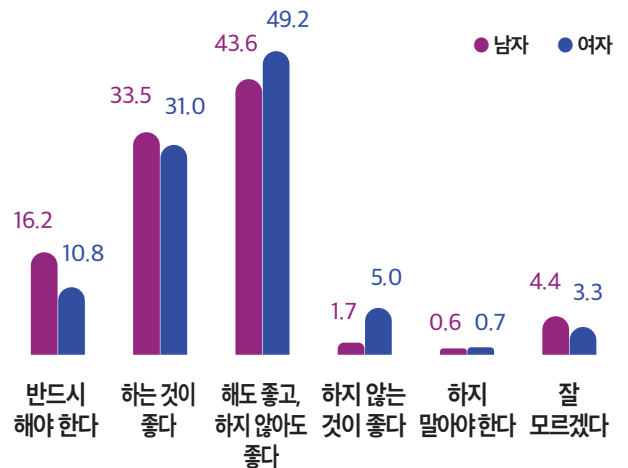
10년 사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은 6% 줄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은 14.2% 늘어나...

- 울산 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20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6.3% 줄어든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14.2% 높게 나타남
- 특히, 2020년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1] 울산 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 (2010~2020 비교)

출처 사회조사 (2010~2020년/통계청)



[그림2] 울산 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 (성별비교)

출처 사회조사 (2020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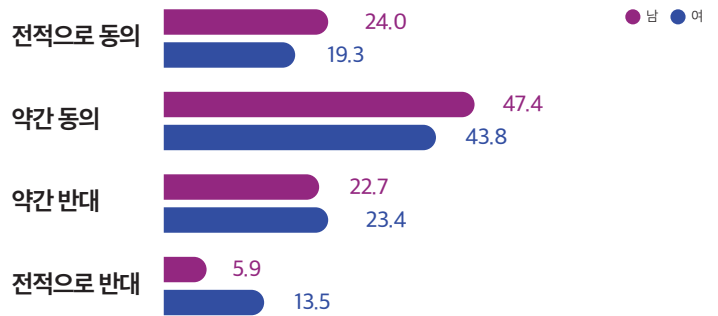
## 울산 시민의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 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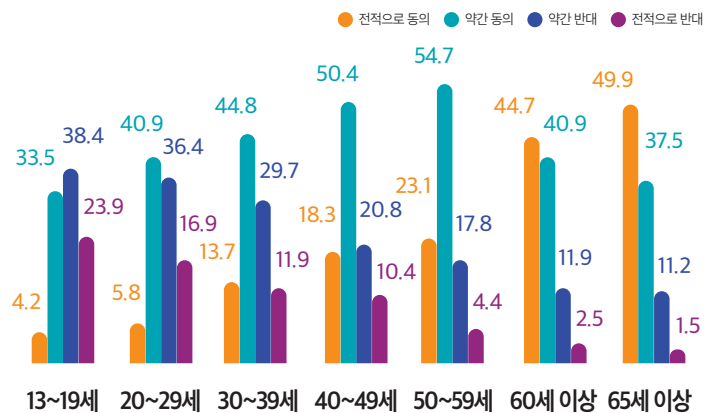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특히,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보다 여성이 7.6%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남

[그림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성별 비교)



출처 사회조사 (2020년/통계청)

[그림4]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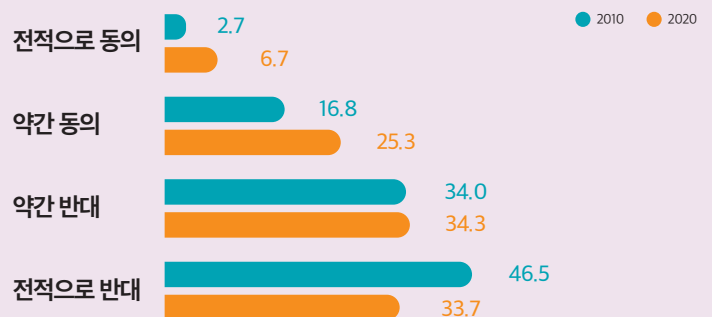
출처 사회조사 (2020년/통계청)

### ②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0년 사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12.5%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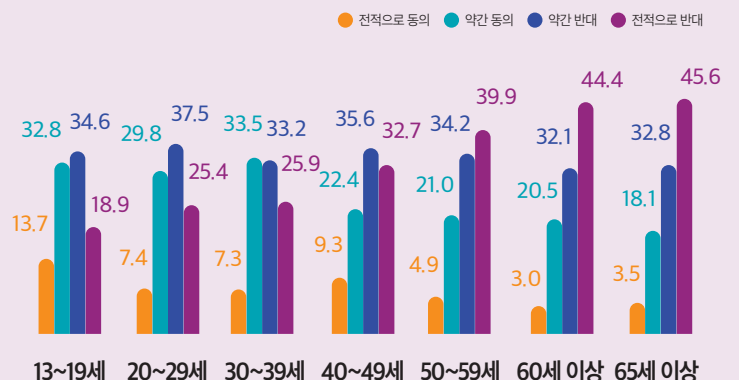
-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12.5% 높게 나타난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12.8%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반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13~19세에서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49세가 20~29세, 30~39세보다 2% 정도 높게 응답함

[그림5]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10~2020 비교)



출처 사회조사 (2010~2020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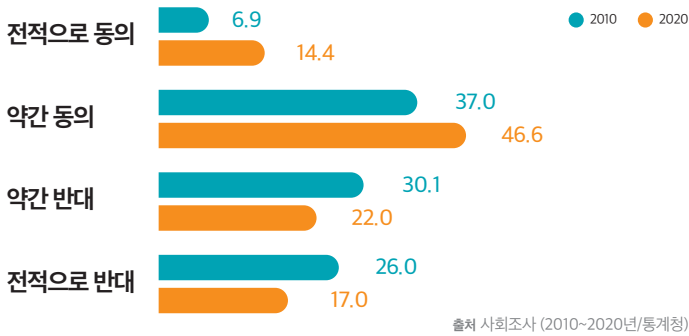
[그림6]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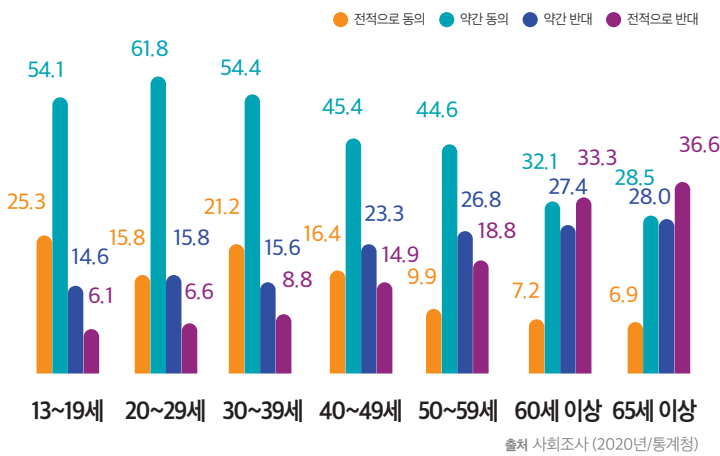
출처 사회조사 (2020년/통계청)



[그림7]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2010~2020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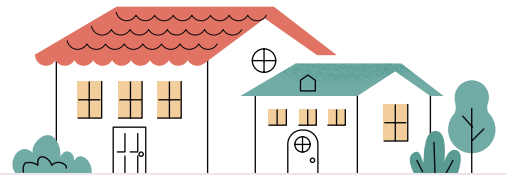
[그림8]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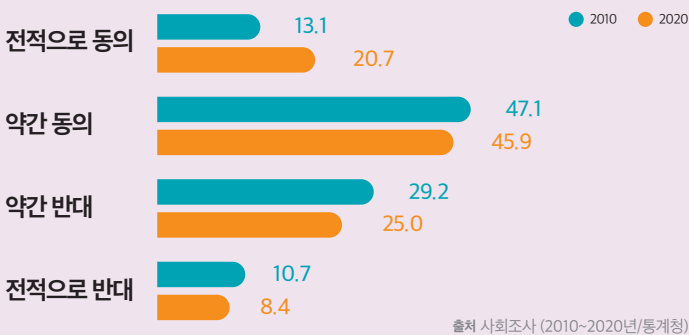
### ③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10년 사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이 17.1%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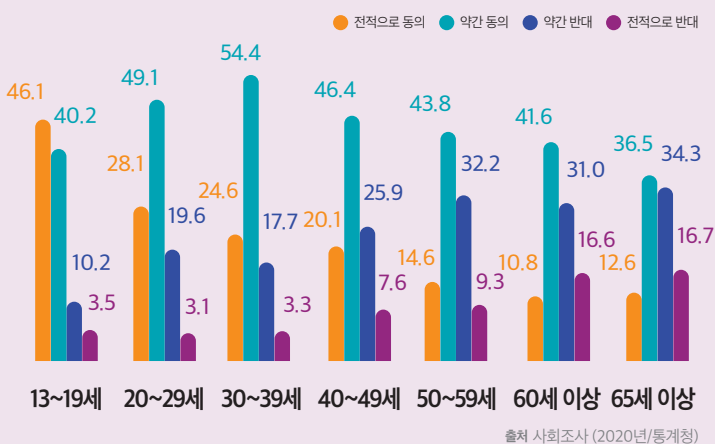
- 2010년에 비해 2020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17.1% 높게 나타남.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7.1%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한다'는 의견이 낮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9]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2010~2020 비교)



[그림10]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연령별 비교)



### ④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10년 사이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7.6%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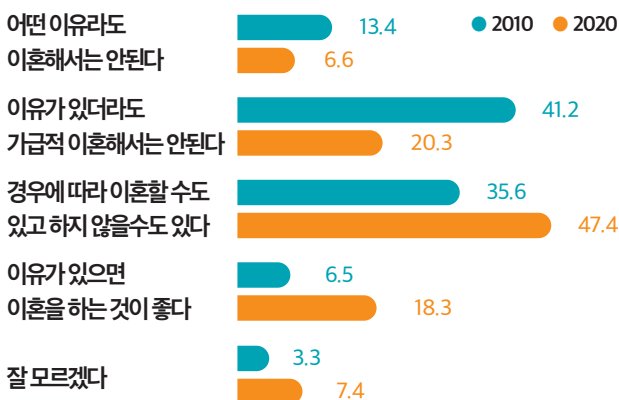
- 2010년에 비해 2020년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7.6%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10대(13~19세)의 경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46.1%로 모든 연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울산 시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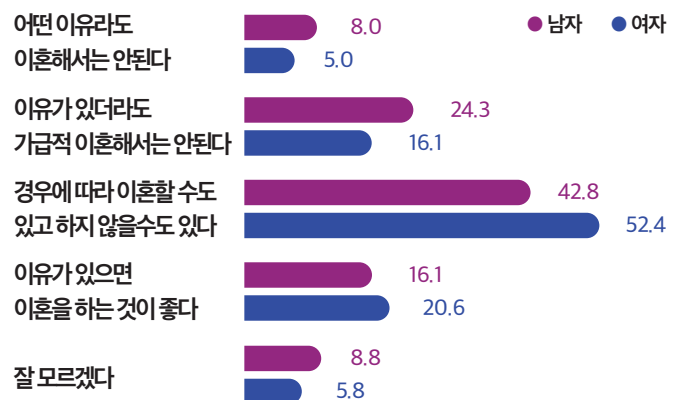
## 10년 사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6.8% 줄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11.8% 늘어나...

- 울산 시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20년 전반적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27.7% 낮게 나타났으며,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11.8% 높게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11] 울산 시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 (2010~2020 비교)

출처 사회조사 (2010~2020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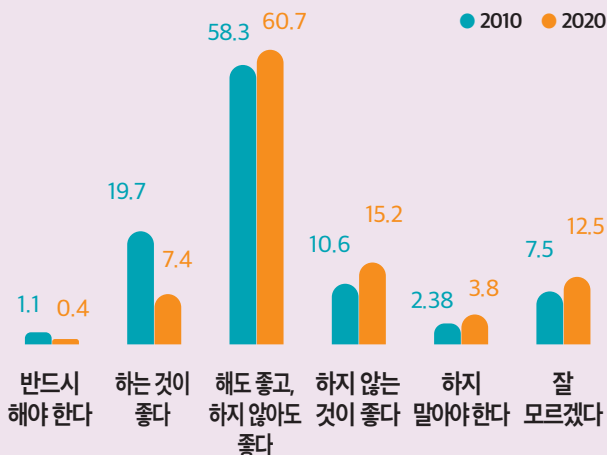
[그림12] 울산 시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 (성별비교)

출처 사회조사 (2020년/통계청)

## 울산 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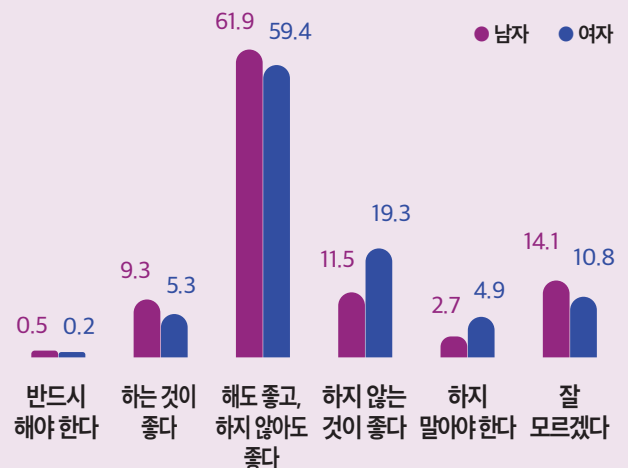
## 10년 사이 '재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 울산 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20년 재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3% 낮게 나타난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8% 높게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은 높게 나타난 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높게 나타남



[그림13] 울산 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 (2010~2020 비교)

출처 사회조사 (2010~2020년/통계청)



[그림14] 울산 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 (성별비교)

출처 사회조사 (2020년/통계청)